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

이름: 현승혁

학번: 20225213

상담 일자: 9/19

Q: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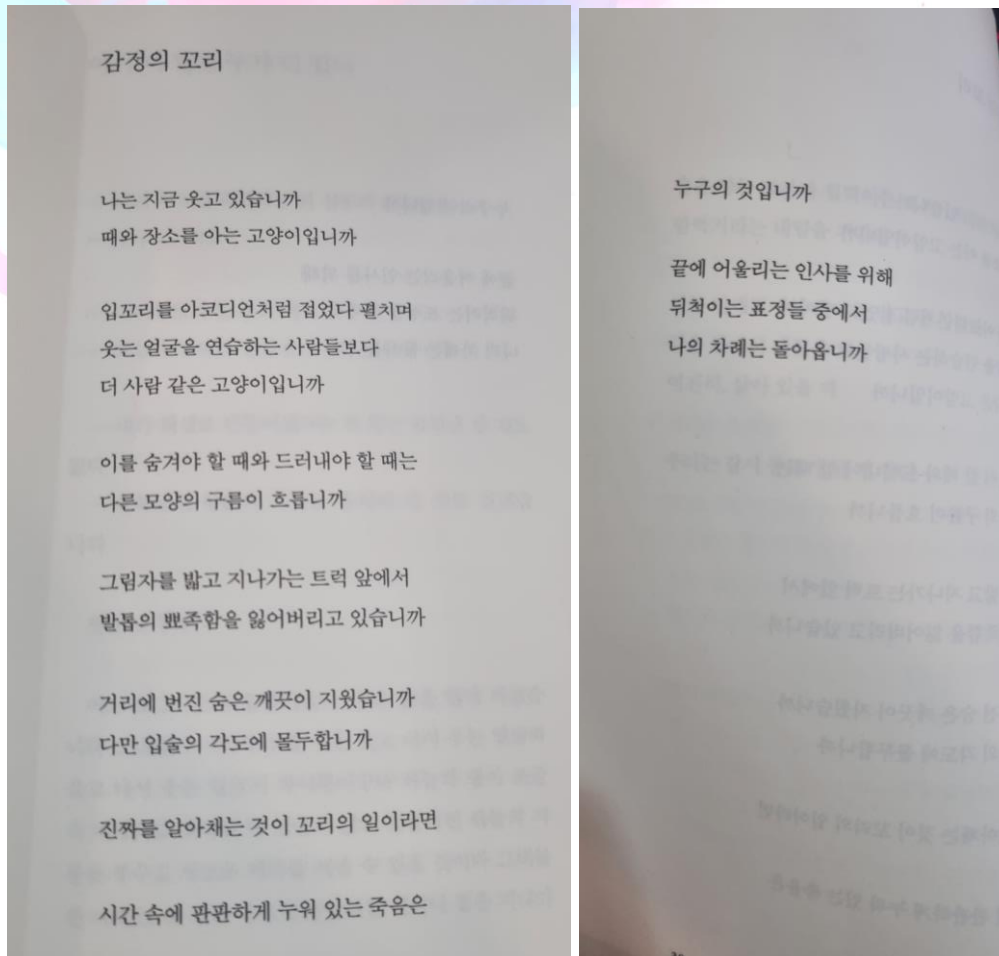
A: 답변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A: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지스트에서 저를 이용하고 얹잡아 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등의 물건을 허락 없이 빌려가 고장내거나, 뒤에서 저에 대한 안좋은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중 3 때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쳐, 수술과 입원, 재활 치료를 하였었고 지금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제 무릎 관련하여 저에 대한 뒷담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함께 친한 친구가 많고, 학교가 워낙 좁기에 불가피하게 계속 마주쳐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Q: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

1. 감정의 꼬리



선정 이유: 승혁이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모습과 잘 이어져서 보이는 시라고 생각이 들었다.
불편해도 웃는 승혁이의 성격이 인간관계 속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 같았으며, 불편한 상황 속의
웃음을 시에서 잘 형상화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 (1-3 연)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 표정/감정을 나타낸 것 같음. (4 연) 힘든 상황 속에서 화내지 않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음. (5-6 연) 표정을 가리려 하지만, 본인은 그 감정들을 느끼고 있음. (7-8 연)
끊어낸 인간관계와 그 속에서의 불편함.

2. 108 개의 치치

108개의 치치

나는 밤이 되면
투명한 고백들로 둔갑하는 치치

땅에 누운 흰 줄무늬들을 힘껏 당기면
잠자던 신호등이 켜지고
부풀어 오른 구름의 배를 가르면
사람들이 뺨은 거짓말이
끈적끈적한 사탕처럼 쏟아져 나오고

시끄러운 이웃집이 지팡이 가게로
하늘에 뭉게뭉게 널린 양말들이
반짝이는 지느러미로 변하고
세상에 없던 주문이 가능해지고

치치는 지붕 위를 달리며
알록달록한 치치들로 불어나고
별들의 느린 하품보다 낮고
발밑의 비밀보다 더 낮은 곳에 모여서
새로운 울음소리를 자랑하지

우리는 꼭대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발끝을 세워 혀끝으로
잘 익은 달을 핥으면

찌릿찌릿 잃어버린 꼬리가 다시 자라는 것 같고
누가 먼저 두 발로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사람들은 엎드려 자면서
네발로 기어 다니는 꿈을 꾸고

서로의 뒤로 숨느라 두꺼워진 그림자처럼
수많은 치치들은 하나의 치치가 되고
커다란 집보다 커다래지고
커다란 숲보다 더 커다래져서
세상의 어둠으로 불리고

선정 이유: 인간관계와 사람으로 인한 상처에 관한 고민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면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시를 처방하고자 이 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시어 해석:

밤 - 꿈의 시간이자 나만의 시간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치치 -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

시 해석:

1 연 - 치치가 밤에만 활동 할 수 있음을 나타냄.

2 연~6 연 - 치치(=나)의 다양한 능력

8 연 - 외부의 힘(혹은 사람들)로부터 숨어 있었지만, 스스로의 능력은 큰 가능성('수많은 치치들은 하나의 치치가 되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 또한 마지막에 세상이 '밤'과 같은 '어둠'이 됨으로서 외부의 힘을 이겨내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뜻함.

->총정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외부의 누가 뭐라하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당당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를 선정하였다.